

2021학년도 졸업설계(건축설계7, 8)

## 한지만 스튜디오

031-324-1490 / [hansanguk@gmail.com](mailto:hansanguk@gmail.com)

### Transition: 역사도시의 전통과 현대 사이

1392년 정도 이래 6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역사도시 서울은, 격동의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급속하게 외래 도시와 건축의 일방적인 이식으로 주도되는 개발과 확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. 그 과정에서 전통문화와 그것의 산물인 도시-건축이 갖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 없이, 도시의 기저를 이루는 시간의 켜들은 빠른 속도로 지워져 왔고, 그 결과 도시와 그 속을 채우는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. 서울이 왜 그곳에 그렇게 자리잡았는지 그 시작을 망각했으니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.

그러나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, 아직도 서울을 역사도시 서울답게 시간의 흔적들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. 거대도시 한복판의 산이 감싸고 물길이 흘러나가는 사대문안 구도심이 그렇고, 그 속에 잠재하는 역사적 유적들이 그러하며, 개발이 요긴하지 못하다는 다행스러운 이유로 일부나마 과거 도시조직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뒷골목과 산자락의 땅들이 그러하다.

이러한 흔적들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 낸 역사도시의 질긴 생명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며, 동시에 역사도시 서울이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기도 하다.

본 스튜디오는 역사도시 서울에 남아있는 시간의 흔적들과 현대도시가 충돌하는 지점에 요구되는 건축적 제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.

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, 선정된 땅에 대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물리적, 인문-사회적 변천 과정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관찰에서 설계가 출발되어야 한다.

동시에 인근의 역사적 유산을 포함해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안이 요구된다.

그리고, 전통도시와 건축의 공간, 형태, 구조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분석에 기반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재해석과 응용의 실험은 계속되고 종합되어야 하며, 그 결과는 현대 도시에서 존재의 당위성을 가지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.

